논 문
CODE 20401

***메를로-퐁티의 신체지각을 통한 감성 공간 연구

A Study on the Sense Space by Merleau-Ponty's Phenomenological body Perception

이 찬* / Lee, Chan
최영재**/ Choi, Young-Jae

Abstract

This paper is a research about the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s of sense space b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rough body from an anthropocentric point of view. The phenomenological expression elements of sense space have been abstracted by putting the characteristics of body perception into shape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the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s of sense space that can be applied by phenomenological elements of emotional expression, and analyze their application level by phenomenological body perception in space through corresponding exampl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expressions of sense space approach - such as migration of moving lines, reiteration and segmentation of region, spatial flexibility, transferal of sense, stimulation of combined senses, symbolic abstraction of memory, perception of environment and space, time by light, phenomenal water space, time expression by surrounding environments etc. -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nse space according to each expression have been obtain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expression elements in sense space such as expansive perception by consecutive scenes, spatial and sensory experience, embodiment of place, phenomenal change by time. It aims to grope for a new approach and possibility to the embodiment and expression of sense space through the expression of sense space approach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body perception.

키워드 : 현상학, 신체 지각, 감성 공간
Keywords : Phenomenology, Body Perception, Sense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감성이라는 어휘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건축 공간 영역에 있어서도 기능을 초월하여 인간의 감성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중심 측면의 신체 즉, 몸을 통한 현상학적 공간 개념은 새로운 시대와 공간에 적합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상학적 공간은 공간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간이 상호 얽혀 있음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08-1961)는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공간에서 창조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고의 중심을 인간의 신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렇게 현상학에서 본 신체를 통한 공간 접근은 인간의 다양한 감각과 지각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간에서 풍부한 감성적 경험과 체험을 갖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학적 신체 지각 특성에 의한 공간 접근을 통하여 감성 공간의 구현과 표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본 신체를 통한 공간 지각 특성과 도출된 특성에 의한 감성 공간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1990년대 이후의 현대공간에서 현상학적 특성을 띄고 있는 감성적 공간 표현의 사례들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에 대한 현상학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본 논문은 2007년도 국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간에서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신체지각의 특성을 정리하여, 감성 공간 표현 특성을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성 공간 표현 특성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감성 공간 표현들을 제시하고, 부합하는 사례분석을 통해 현상학적 신체지각에 의한 감성 공간 표현과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감성 공간과 현상학적 신체지각의 개념고찰

2.1. 감성 공간의 의미

감성 공간은 인간이 가진 감각을 섬세하게 자극하여 감각을 보다 활성화시켜 공간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에서 감성디자인은 인식의 주체인 인간의 몸으로 세계와 접촉하게 되며 살아가는 현실과 생활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인식의 이미지와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와의 관계[1]라 할 수 있다.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감성의 개념을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 어떤 대상과 교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느낌' 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교감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감성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 이로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감성 공간이란 인간과 공간 상호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적 체험과 감성적 경험을 풍부하게 함을 전제하고 있다.

2.2. 메를로-퐁티 현상학적 신체 지각의 개념

(1) 공간 해석의 변화와 현상학의 인식

근대적 개념의 공간은 물적 대상으로만 사고의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그것은 주어진 대지에 건축공간이 어떤 체적으로 구축되는가가 중요하였다. 결국, 형태만을 해석하는 한계에 부딪혀, 공간을 단지 대상이 아닌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고, 새로운 방법으로써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현상학적 의미는 인간의 모든 체험에서 비롯되는 공간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현상학은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것을 경험적인 차원으로 설명하였고, 지각은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간에서의 체험은 종합적 감각체험으로써 그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신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학은 메를로-퐁티에 이르러 더욱 계승·확장되었으며, 인간의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2)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신체지각

메를로-퐁티의 지각 이론은 지각에 대한 후설과 칸트의 고전적인 해석과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후설은 감각적인 질료(Hyle)에 의식 작용인 노에시스(Noesis)가 작동하게 되며, 의미 형성체인 노에마(Noema)가 성립된다고 하는 이른바 '삼각구도'를 통해 지각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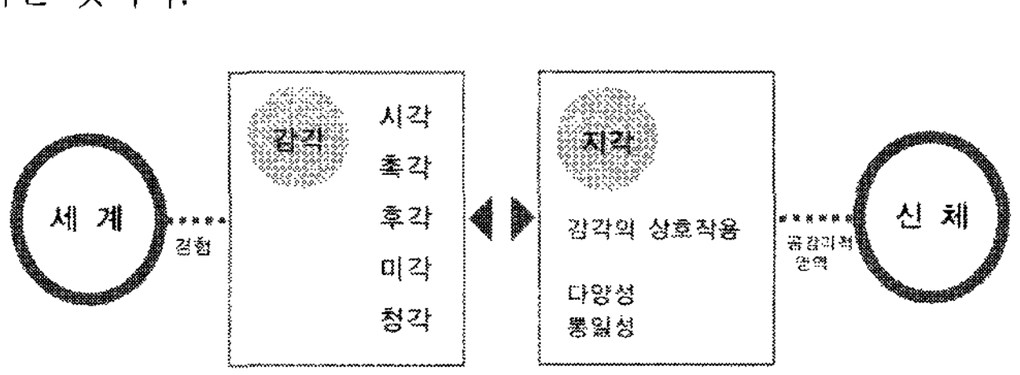
칸트에 의하면, 감각자료에 시간과 공간이 매개되어 직관이 되고, 이어서 지성이 형성된 상상력을 통해 경험적인 인식, 즉 지각적인 인식이 성립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선험적인 의식이 감각적인 소여[3]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여 최종적으로 의미형성체 또는 경험적 인식을 도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메를로-퐁티는 선험적인 의식 대신에 자신의 신체(body)를 내세운다. 선험적인 의식 대신에 몸 자신이 그저 대입되는 형식이 아니라 몸 자신이 일차적인 감각자료나 또는 질료들과 함께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지각의 진정한 주체를 '신체(body)'로 인식하며, 모든 지각의 출발점은 '체험되고 체험하는' 고유한 신체로 생각한 것이다.

더불어서 메를로-퐁티는 공간성이라는 개념을 삽입하여 공간에 대한 감각작용이 신체를 통하여 지각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감각들이 동일하고 포괄적인 공간에 모두 개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 구조가 감각들의 입체적인 결합을 유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후설, 칸트와 메를로-퐁티 지각 작용의 비교

구 분		지 각 작 용
고전적 해석	칸 트	· 감각적 소여 → **선험적 의식** → 의미형성체, 경험적 인식
	후 설	
메를로-퐁티		· 감각적 소여 → **몸** → 의미형성체, 경험적 인식

다시 말해서 각각의 감각은 자체적으로 특정한 세계를 가짐과 동시에 공간을 통하여 통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인간에게 전체적인 감각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감각들은 그 나름대로 대상 속에 내재된 내부 핵(core), 혹은 구조를 드러내 주며, 이를 통하여 다른 감각들과의 소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4]



<그림 1> 메를로-퐁티의 지각에 의한 세계와의 관계 맺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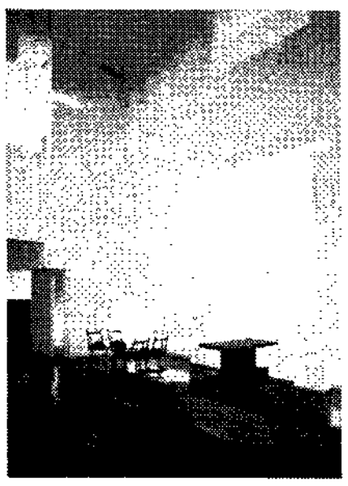
감각의 통합은 현상적인 신체 자체와 다름 아닌 공동작용

1)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인간의 '몸'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3권 2호 통권43호, 2004.04, p.192
2)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283
3)소여(所與) : 사유(思惟)에 의하여 가공되지 않은 직접적인 의식 내용
4)서우석·임양역,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청하, 1992, pp.13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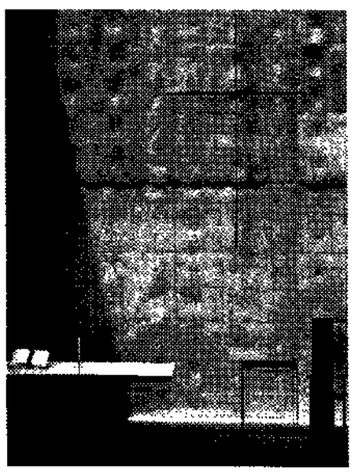
시스템을 통한 점진적인 화합을 통하여 일어난다.[5] 이는 환경을 인식하는데 있어 인간을 분리된 독자적 존재로 보지 않고 동시에 지각의 핵심에 인간이 있으며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본질로 보고, '나의 신체(육체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3. 현상학적 신체 지각에 의한 공간체험

현상학에서 본 신체 지각을 통한 공간은 체험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간에서의 현상학적 신체지각 체험은 공간을 구성하는 사물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장(場)이 서로 얽혀서 새로운 의미를 유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학적 지각체험을 통해 공간에서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을 창조하게 된다. 공간에서 체험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물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6]을 의미한다. <그림 2> 스티븐 홀의 D.E. Shaw & Co. 공간에서는 빛과 색채의 결합에 의한 다양한 현상의 변화를 통하여 강렬한 현상의 본질을 드러내며, 감각과 지각의 활성화에 의한 공간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인간이 공간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이들 감각 중 '눈'이 이끄는 시지각적 관계와 '몸'에 근거한 촉각적 관계가 서로 통합되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안도 다다오의 Chapel on Mount Rokko 공간에서는 시간에 따른 빛에 의해 콘크리트의 물성이 비-물질화되어 시각적인 것을 넘어 촉각적인 영역으로 지각을 확장시켜 공간에서 현상적 체험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림 2> D.E. SHAW & CO. OFFICE, Steven holl, 1991-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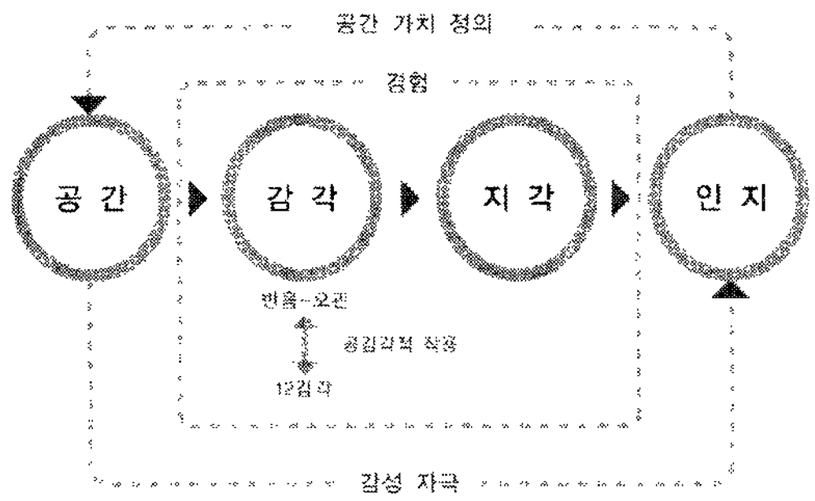


<그림 3> Chapel on Mount Rokko, Ando Tadao, 1986

공간에 있어서 '현상학적 신체지각'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내포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각적인 자극 및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자극을 포함하며, 이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의 내면에 배어 있는 느낌, 상상력, 의미를 포함하고, 삼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이 인간 존재와 관련되어 '인간-환경'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져 융합하는 총체적 현상의 체험을 의미한다.[7] 즉, 메를로-퐁티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존적 장소와 신체의 가능성이라는 것 역시, 경험 혹은 체험에 의한 공간을 통해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상학적 관점에서 신체에 의한 지각을 통해서 공간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여러 감각을 자극받게 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감성적 체험과 경험을 얻게 된다.

2.4. 현상학적 신체지각을 통한 감성 공간 접근

앞서 언급한, 신체를 통해 공간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즉 현상학적 신체지각에 의한 공간 체험은 이성적 논리보다는 시각, 촉각, 통합감각을 인간의 모든 감각 경험이 동원되어 전체 환경으로 경험되는 통합적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림 4> 감각, 지각, 인지 관계에 따른 감성 공간 접근

공간에서 인간은 <그림 4>에서처럼 공간의 자극에 최초로 작용하는 오관을 통하여 반응하고 이는 곧 12감각과 함께 공감각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지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한 인지과정에 의해 공간의 가치는 정의되고, 그 공간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며 피드백 작용을 통하여 다른 공간의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8] 결국, <그림 5>와 같이 공간에서 여러 감각 반응을 통한 지각과 감각의 활성화에 의한 현상학적 지각체험을 통해 인간과 공간 상호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며, 감성을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를 통한 현상학적 지각체험에 의해 공간사용자는 공간에서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학적 지각체험에 의한 공간 접근으로 감성공간의 구현과 공간표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5> 현상학적 신체 지각에 의한 감성 자극

3. 현상학적 신체지각을 통한 감성 공간 표현

앞서 살펴본, 현상학적 공간지각의 내용과 선행연구[9]를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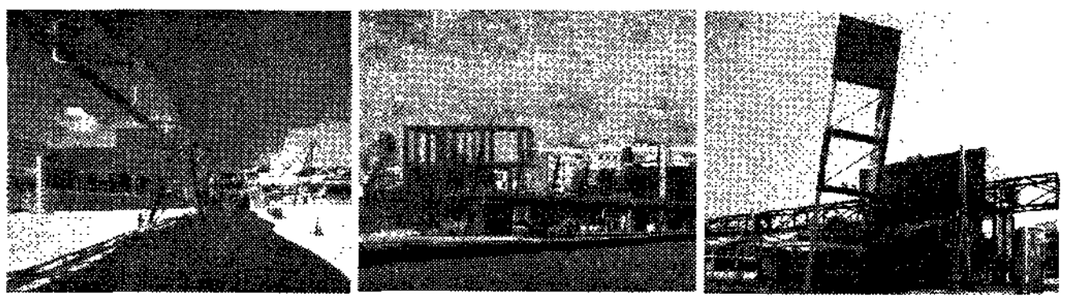
5)최희랑, 유동적 개념의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체지각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론, 2004, p.30
6)이선정, 현상학적 체험을 통한 건축의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5권 2호, 1995.10, pp.179-181
7)임승빈, 도시에서의 현상적 체험, 공간, 1994.1, p.51
8)김예진·이정욱, 경험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인학회 제15권 4호, 통권 57호, 2006.08, p.141
9)최희랑, 유동적 개념의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체지각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론, 2004, pp.38-45 / 김은이, 신체지각을 통한 공간디자인

로 현상학에서 본 신체에 의한 공간지각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신체지각의 특성들을 토대로 감성 공간 접근 표현 틀로 삼고자 한다.

3.1. 공간에서 현상학적 신체지각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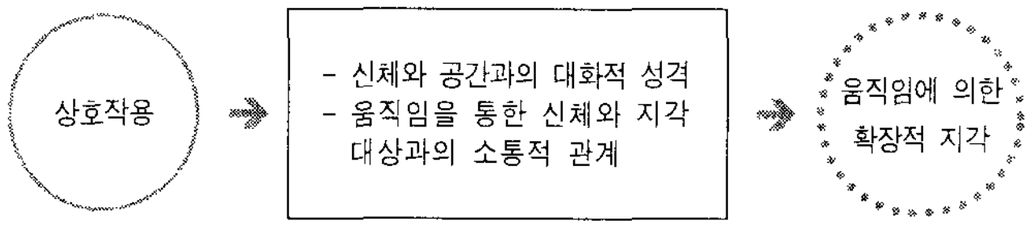
(1) 상호작용

신체를 통한 지각은 단순한 선형적인 인식이 아니라 대상과 서로 소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주체가 우리의 신체임을 밝히고 있는데, 신체는 운동성을 수반하고, 이 운동성은 신체에 근거하고 있다. 근원적인 지각은 일종의 신체적 행위이며, 지각의 과정은 몸의 운동적 과정과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움직임의 능력으로서의 몸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며 지각의 주체로서 세계 속에서 현전하며 그것을 알아가는 방식이다.[10] 몸의 움직임에 따른 경험은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주고받게 된다. 결국,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으며, 움직임에 의해 지각한 공간사용자는 공간과 상호소통하며 공간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6> 움직임에 의한 상호작용, Parc de la Villette 1987, Bernard Tschu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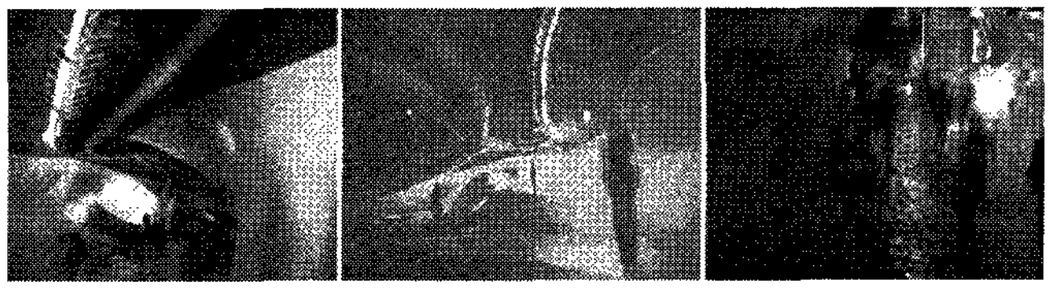
<그림 6>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뜨 공원은 이러한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발하게 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연속적인 관계 안에서 공간과 환경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신체의 이동과정이나 행동에 의한 다양한 상황과 공간을 지각하게 한다.



<그림 7> 상호작용 특성에 의한 감성 공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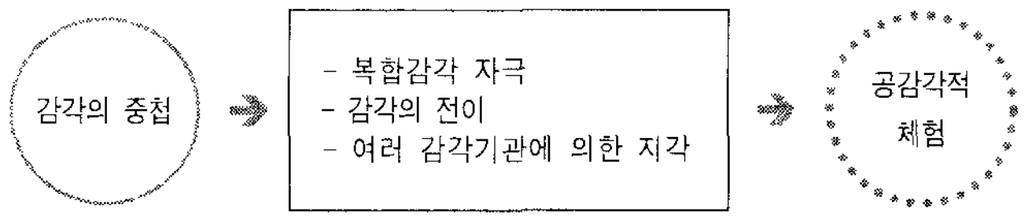
(2) 감각의 중첩

퐁티는 지각 과정에서 언급하는 지각은 각각의 감각들의 통합된 결론이며, 이것은 우리가 외부환경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상태에 대해 경험하는 방식이라 보았다. 다시 말해, 신체를 통한 지각은 감각기관에 크게 의존하며,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공간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감각의 인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시지각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치수와 형태의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른 모든 감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신체 지각에서의 감각기관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감각적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은 각각 개별감각이지만 신체를 통한 지각에 의해 감각이 중첩되거나 전이되어 보다 복합적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 감각 자극에 의한 감각의 중첩은 우리의 지각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림 8> Nox의 H2o Expo 공간



<그림 8> 감각의 중첩, Fresh H2O Water Pavilion 1997, Nox

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복합적 감각을 자극하게 하며, 공간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공간에서 센서들은 인간 신체의 끊임없는 변화에 의해 상호 반응하고, 공간의 지속적인 변화는 다양한 총체적 감각을 형성하게 하여 지각을 풍부하게 돕는다.



<그림 9> 감각의 중첩 특성에 의한 감성 공간 특성

(3) 경험과 기억의 연상

현상학에서 바라보는 신체에 의한 공간 지각은 인간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통합된 과정을 거쳐 공간을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신체의 감각기관에 의해 감각되어진 것은 기억과 같은 정신적인 것과도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과거에 경험하여 지각한 것들에 대한 기억의 연상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감각들이 더해져 지각을 하게 된다.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요소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 혹은 의미를 주는 요소, 연속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상의 점 또는 위치 등을 기억하게 된다. 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기억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공간의 이미지는 관찰자와 환경사이에서 생겨나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개인이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심상을 뜻하는 것이다.[11] 이러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론, 2005, pp.48-54 / 박연정, 현대 미니멀 건축의 지각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론, 2003, pp.5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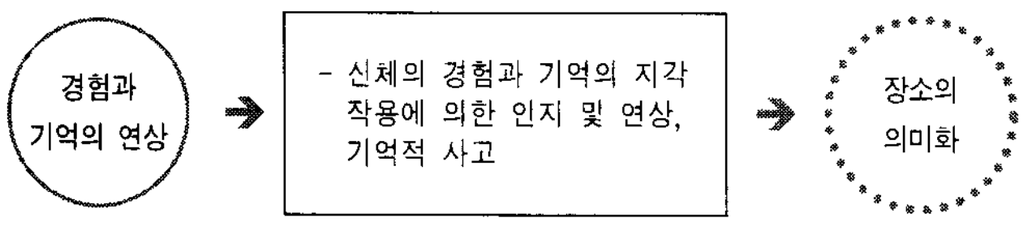
10)홍유란·권영걸, 현대공간디자인에서 빛의 지각방식과 공간경험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6권 2호 통권61호, 2007.4, p.341

11)이상호·김태환, 인지적 공간개념에 의한 실내건축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23호, 2000.06, p.134

한 공간의 이미지는 현재의 지각과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건축가 찰스 W. 무어는 공간의 중요성을 신체의 기억을 통해 체험되는 건축이라고 언급했는데, 공간을 시각적 차원의 의미전달 보다는 신체의 기억을 통해 경험되고 인지되어지는 '장소의 영역성'으로 인식하였다. 장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은 지각된 공간체험으로서의 장소적 개념이며, 세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억, 위치, 존재를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이러한 경험과 기억은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신체의 감각들과 통합하여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10> 피터 아이젠만의

<그림 10> 경험과 기억의 연상,
Memorial to the Murdered European Jews 2005, Peter Eisen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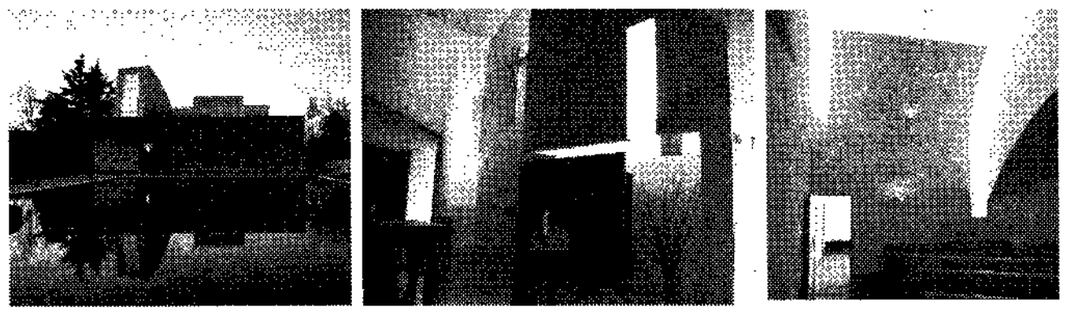
베를린에 위치한 유대인 추모공간에서는 기억의 연상에 의한 지각작용을 통해 장소의 의미화를 잘 표현한 사례이다. 사각 콘크리트 박스는 무덤보다 훨씬 함축적인 의미로 방문객들에게 다가오며, 이 공간을 걸으면서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며, 함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와 공간의 상징화를 통하여 감각과 지각작용을 유도하게 한다.



<그림 11> 경험과 기억의 연상 특성에 의한 감성 공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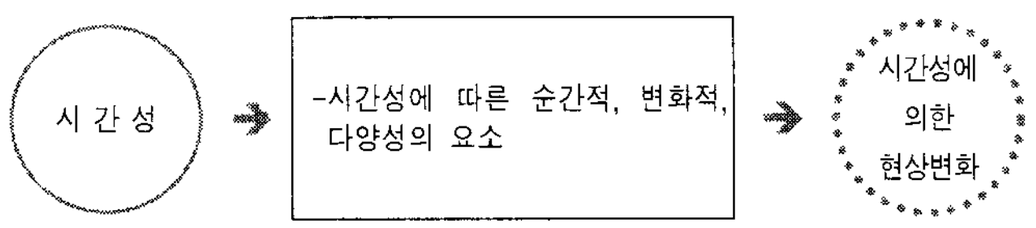
(4) 시간성

메를로-퐁티는 신체는 항상 시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실존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공간을 시간과 함께 인식하되, 시간을 동적인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신체의 경험을 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세계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하는 현실의 상황이다. 인간은 진정한 시간 즉 우리의 일시성, 지속 영원성의 근거가 되는 원초적인 시간경험, 시간적 상호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은 현존(presence)의 장 안에서이다.[12] 현재는 폐쇄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 양방향으로 자신의 범위를 뛰어 넘는다. 시간은 '외부적 사건들' 혹은 '내적인 상태' 들의 연쇄인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 지각에서의 주관성은 곧 시간성이 된다. 결국,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시간은 공간에서 지각적인 질을 새롭게 규정하고, 지각의 확장 가능성을 갖게 하며, 다양한 공간의 깊이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2> 시간성, Chapel of St. Ignatius 1997, Steven Holl

<그림 12>스티븐 홀의 Chaple of St. Ignatius 공간에서는 이러한 시간성에 의한 현상적 체험요소로 빛과 물을 사용하여 신체 지각에 의한 공간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공간에서 밤과 낮, 계절, 시간 등의 변화를 통하여 시간성의 체험에 의해 새로운 감각과 지각의 가능성을 유도해주고 있다.



<그림 13> 시간성 특성에 의한 감성 공간 특성

즉,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특성들은 결국 완전히 채워질 수 없으며, 다양성과 미확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같은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자극이라도 그 순간의 상황, 개인의 기억 등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지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현상학적 신체지각의 특성들은 공간에서 감각과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감성 공간의 주요한 특성이 될 수 있다.

3.2. 현상학적 신체지각에 의한 감성 공간 특성

(1) 움직임에 의한 확장적 지각

공간에서 인간의 움직임은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켜주게 되되는데, 공간은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을 담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움직임을 유도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한 지각은 장면성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성은 공간의 흐름 즉, 연속성(scequence)의 표현을 동반하고, 이는 매우 가변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설화적(narrative) 성격의 표현으로 공간에서 유동성으로 보여 진다. 이리하여, 공간은 고정적 요소가 아닌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환경 사이에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다양한 감각자극을 얻게 되고, 신체에 의한 이동과 움직임의 변화를 유발하여 정체된 공간 속에 긴장감, 역동성, 변화 등의 공간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시각

12)박연정, 현대 미니멀 건축의 지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론, 2003, p.53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에 의해 공간사용자는 공간에 대해 상호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공간에서 연속적 장면에 의한 확장적 지각의 특성은 동선의 회유, 영역의 중첩 및 분절, 공간적 유동성 등의 공간 표현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2) 공감각적 체험

오감의 자극을 통한 감성 공간 접근의 표현은 복합적 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용하게 되어,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즉.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등의 오감의 자극을 통하여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각적 체험은 감각의 중첩과 감각 전이현상을 일으켜, 공간사용자들로 하여금, 우연적 효과, 모호한 지각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현대의 공간디자인은 공간과 공간사용자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관계를 형성 및 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감각체계의 자극은 테크놀로지의 지원에 의해 더욱 잠재적 감각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행태와 참여를 유발하게 하여 감각과 지각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감성적 경험을 풍부하게 이끈다. 이는 인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Interaction)하면서 환경장치를 통해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지각과 경험으로 개개인의 감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감각적 체험의 특성은 공간에서 감각의 전이, 복합감각의 자극 등의 공간표현을 통해 표출시킬 수 있다.

(3) 장소의 의미화

한 장소와 그 장소에 구축된 공간은 상호교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지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기억의 상호교류의 관계를 거치면서 현상학적 접근의 감성 공간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소성 반영에 의한 공간은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 하는 동안 그 장소에 대한 의미가 감각화 되어 상징성, 추상성 등의 표현으로 보여 지게 되며, 감각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간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소는 기억, 사건, 경험, 위치의 요소를 포함하며, 장소의 의미화는 장소가 갖는 정체성과 맥락성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결국 장소의 표현에 있어 그 대지와 장소가 갖는 물리적, 인문적, 자연 환경적, 사회 문화적 특성들의 반영이며, 그것은 곧 장소가 갖는 의미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탐구와 표현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다.[13] 공간에서의 장소의 의미화 표현은 장소가 갖는 경험과 기억들이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화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다양한 감각적인 상황에 의한 체험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장소에서 인간은 장소의 혼을 느끼며 환경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공간에서 장소의 의미화 특성은 기억에 의한 상징과 추상, 환경과 장소의 인지 등의 공간표현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4) 시간성에 의한 현상 변화

신체의 지각을 통한 개인의 주관적 체험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간성의 체험은 공간에서 지각체험 요소의 기반이 되며, 새로운 지각의 확장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감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간에 이러한 시간성을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 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간에서 빛, 바람, 물, 자연환경과 같은 자연적인 것들과 변화되는 주변 상황 등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상은 공간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감각을 활성화 시키는 감성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간성에 의한 현상의 표현은 공간에서 자연 생명적이고, 시간에 의한 다양한 상황을 암시해주기도 하며, 순간적인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변화 및 비일상적 특성을 갖는다. 결국, 신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각한다는 것은 신체를 통해 공간 속에 여러 현상적 요소를 지각하고 체험함으로써 시간성 체험에 의해 감성적 경험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간에서 시간성에 의한 현상 변화의 특성은 빛에 의한 시간성, 현상적 수공간, 주변 환경에 의한 시간성의 표현을 통해 공간화 시킬 수 있다.

<표 2> 현상학적 신체 지각에 의한 감성 공간 특성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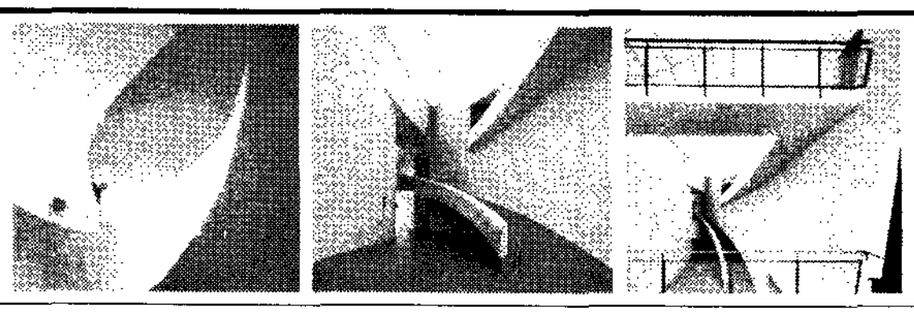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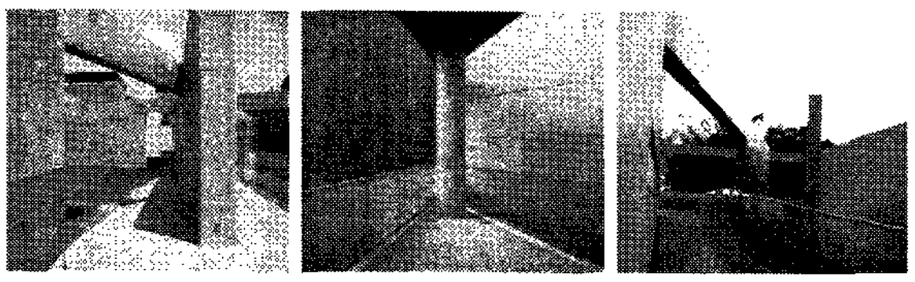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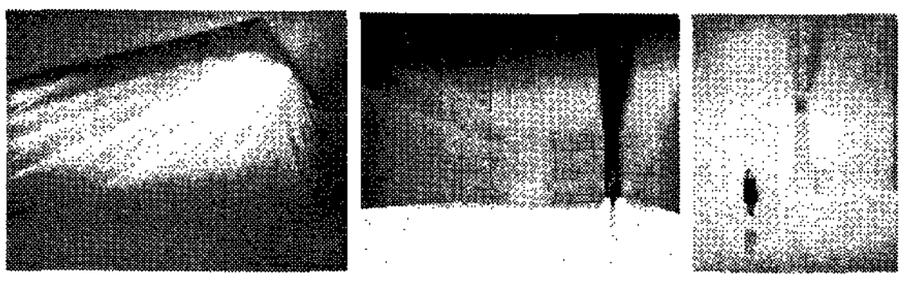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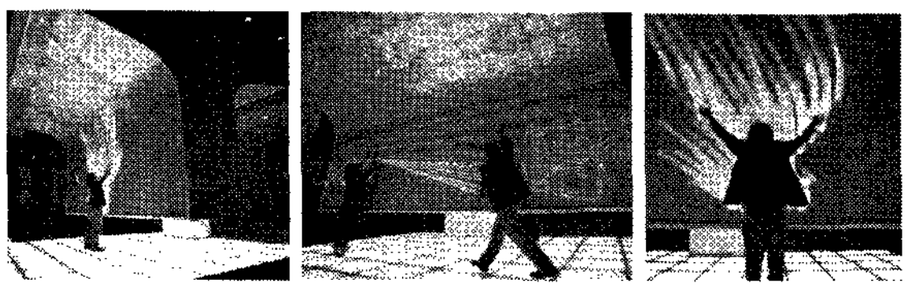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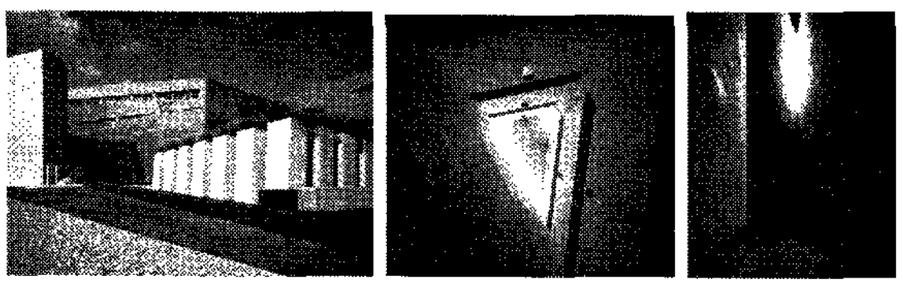
현상학적 신체지각 특성	현상학적 감성 공간 특성	감성 공간 표현
상호작용	움직임에 의한 확장적 지각	동선의 회유
		영역의 중첩 및 분절
		공간적 유동성
감각의 중첩	공감각적 체험	감각의 전이
		복합 감각 자극
경험과 기억의 연상	장소의 의미화	기억의 상징-추상화
		환경과 장소의 인지
시간성	시간성에 의한 현상 변화	빛에 의한 시간성
		현상적 수공간
		주변 환경에 의한 시간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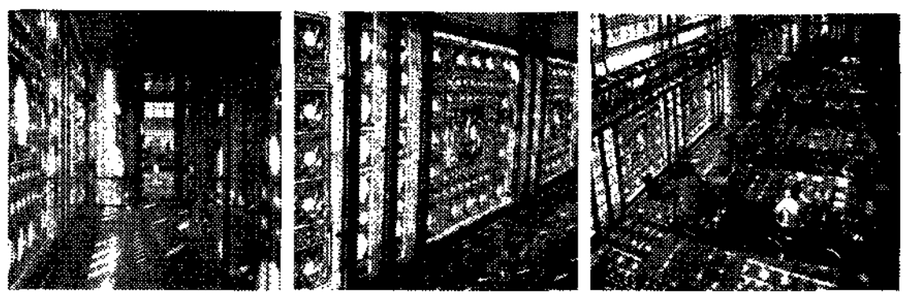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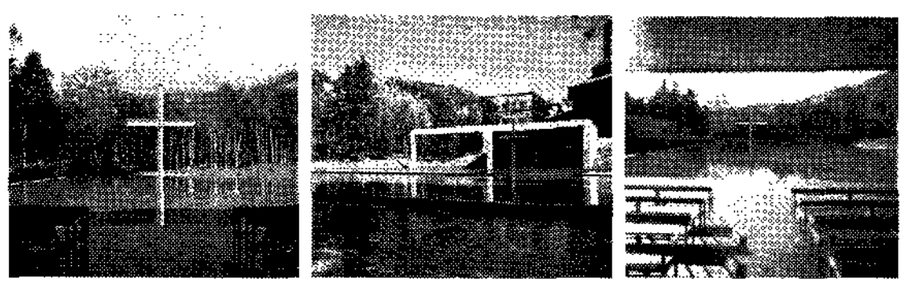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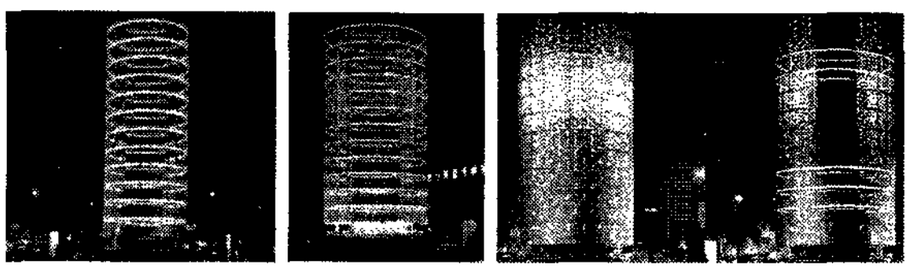
4.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감성 공간 표현특성에 의해 도출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90년대 이후의 현대 공간에서 작품대상을 선정하여 각각 사례에 대한 감성적 표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공간 특성을 도출한다. 감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명확한 특성의 구분이나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상학적 신체지각의 특성에 의한 감성적 표현이 드러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간에서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감성 공간 표현과 특성 키워드들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13)조희철,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0, 초록 참조

<표 3> 현상학적 신체 지각 특성에 의한 감성 공간 표현 사례

현상학적 신체지각 특성	감성공간 특성	표현 방법	공 간 이 미 지	감 성 적 표 현 분 석 및 키 워 드
상호작용	움직임에 의한 확장적 지각	동선의 회유		-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망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시퀀스를 체험. - 공간전체에서 유연하게 펼쳐지는 시퀀스와 다양성은 방문자들이 능동적으로 공간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황으로 채워나가도록 의도하고 있음. - 유도된 움직임과 시선의 확장에 의한 연속적, 장면적 관계 형성. - 움직임에 의한 다양한 사건과 상황의 유도를 통한 다양한 감각적 체험 형성.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2-1998, Steven Holl	키워드 **연속성 · 장면성 · 유동성 · 역동성 · 불확정성**
		영역의 중첩및 분절		-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영역의 중첩과 분절에 의한 역동적, 미확정적 틈새영역. - 틈새영역은 공간사용자가 자신의 내부에 담고 있는 공간의식으로 신체를 통해 스스로 채워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는 장면화, 미로화. - 과정적 접근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연속적 지각에 의한 다양한 장면과 사건을 통한 공간지각 체험을 유도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감각을 극대화 시키게한다.
			The Garden of Fine Arts 1994, Tadao Ando	키워드 **장면성 · 역동성 · 연속성 · 불확정성**
		공간적 유동성		- 공간을 구성하는 면은 평면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선을 비틀리면서 공간의 유동적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음. - 공간의 흐름에 의한 연속적 흐름과 장면. -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간 이미지와 공간의 변화감을 지각하게 함. - 공간사용자로 하여금 강한 동적 움직임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공간에서 다양한 신체의 지각과 감각을 증진시키게 한다.
			Aquatics Centre 2012, Zaha Hadid	키워드 **연속성 · 장면성 · 유동성 · 역동성**
감각의 중첩	공감각적 체험	감각의 전이		- 빛에 의한 물성의 시각적 자극은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적으로 의도되어 복합적 감각을 이끌며 공감각적 체험을 유도 - 물성에 대한 시각과 촉각의 감각이 중첩되어 감각의 전이효과에 의해 지각의 모호성의 결과를 얻게 된다. - 재료의 비-물성화를 통한 확장적 지각, 모호성의 지각, 미확정적 공간 지각 - 복합감각 자극에 의한 감각의 전이는 감각과 지각을 활성화시키며 감성 자극을 극대화 시키게 한다.
			Lexus L-Finesse Milano Salone 2006 ,Tokujin Yoshioka	키워드 **상호작용성 · 모호성 · 불확정성**
		복합감각의 자극		- 공간사용자가 공간에 접근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장치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 빛에 의한 시각적 자극은 공간사용자로 하여금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며 공간에서 다양한 감각자극과 행동을 유발. - 체험적 요소에 의한 다양한 운동감각, 지각, 감각의 활성화에 의해 감성을 자극. - 촉각적, 시각적, 청각적 반응장치에 의한 감각의 지원성.
			Bloomberg Ice Tokyo 2002, Klein Dytham Architecture	키워드 **상호작용성 · 모호성 · 지원성 · 참여성**
경험과 기억의 연상	장소의 의미화	기억의상징추상화		- 분열된 형태와 연결된 선들은 장소의 의미화, 상징화, 추상화 - 내부에서 거대하고, 폭이 좁은 빈 수직공간은 베를린의 편견, 편협한 신앙, 반유태주의의 상징적 의미가 베어 있음으로써 역사적으로 기억을 공간을 따라 경험. - 공간에서의 상징적 추상의 표현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장소가 갖는 장소의 혼을 일으킴, 공간자체가 관람자와의 의미작용의 주체 - 장소의 의미화를 통한 사건의 기억과 연상 이미지에 의한 감각의 자극.
			The Jewish Museum Berlin 2001, Daniel Libenskind	키워드 **상징성 · 추상성 · 맥락성**
		환경과장소의인지		- 이 지방의 현무암을 외피로 이용하고, 외피로 이용된 석쇠는 주변 환경의 일부를 건물내에 직접적으로 도입시킴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유도. - 장소와의 공간과의 상호 상호작용적 관계 형성. - 공간에 주변 환경 요소 반영을 통한 장소의 맥락성 부각. - 주변환경과 공간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장소의 인지 및 지각체험에 의해 감각 자극을 유도.
			Dominus Winery, Yointville, California1998, Herzog & de Meuron	키워드 **자연성 · 맥락성 · 상징성**

시간성	시간성에 의한 현상 변화	빛에 의한 시간성 표현		- 시간과 빛에 의한 아랍문양의 다채로운 변화와 유리나 석재, 프레임들이 빛과 함께 다른 재료로 비-물성화 되어 시간에 따른 현상들의 변화. - 빛의 유입에 따른 변화 다양성. - 시간성에 의한 다양한 현상들의 존재, 다양한 순간의 경험, 비일상적 체험에 의한 지각과 감각의 활성화.	
			Arab World Institute 1981-1987, Jean Nouvel	키워드	**다양성 · 비일상성 · 암시성**
		현상적 수공간		- 기하학의 형상 속에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의 다양한 상황을 물을 통해 현상의 지각 체험을 이끌고 있음. - 물은 신체적 체험을 유도하는 장치미여, 비-물질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으로 신체를 통한 감각에 호소하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온몸으로 체득되는 감각적 공간을 제시. - 물에 비친 다양한 자연현상의 변화를 끌어들이며, 현상변화에 의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며 감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됨.	
			Church of Water 1985-1988, Tadao Ando	키워드	**자연성 · 다양성 · 암시성**
		주변 환경에 의한 시간성 표현		- 주변 환경요소들이 정보화되고 수치화 되어 시간에 의해 자기 감응적으로 반응하며, 시간성에 의한 다양한 상황을 인식. - 주변의 소음, 바람의 방향과 속도등의 자연 현상이 빛의 조도에 의해 표현되어 시간 추이에 따른 감흥을 유발. 다양한 주변 환경의 현상들을 표출해 냄으로써 감각을 자극. - 타워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주변 환경과 시간적 흐름과 변화 다양성 - 거울과 빛 램프에 의한 표현으로 주변상황의 암시, 비일상적 효과	
			Wind of Tower 1986, Toyo Ito	키워드	**다양성 · 비일상성 · 암시성**

5.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의 신체지각 특성을 통한 감성 공간의 표현과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감성 공간 접근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신체지각에 의한 감성 공간 표현특성을 추출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감성 공간 접근의 표현을 제시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간특성 키워드를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에 의한 확장적 지각의 감성 공간 특성은 동선의 회유, 영역의 중첩 및 분절, 공간적 유동성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공간에서 연속성, 장면성, 유동성, 역동성, 불확정성의 특성들이 보이고 있다.

둘째, 공감각적 체험의 감성 공간 특성은 감각의 전이, 복합감각의 자극의 표현으로 공간에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성, 모호성, 지원성, 불확정성, 참여성의 특성을 갖는다.

셋째, 장소의 의미화의 감성 공간 특성은 공간에서 기억의 상징-추상화, 환경과 장소의 인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징성, 추상성, 맥락성, 자연성의 특성이 보여 진다.

넷째, 시간성에 의한 현상변화 감성 공간 특성은 빛에 의한 시간성, 현상적 수공간, 주변 환경의 시간성 표현에 의해 공간에서 드러나게 되며, 자연성, 다양성, 비일상성, 암시성의 공간 특성들이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학적 감성 공간 특성에 의한 표현들은 감성 공간 접근에 있어서 감각과 지각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공간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감성적 체험을 유도하게 해준다. 이렇게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감성 공간의 표현과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신체의 다양한 감각과 지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의 다양한 접근과 표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박길룡, 현상으로서 건축, 공간, 1994
2.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우석·임양혁 역, 청하, 1992
3. 메를로-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4.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5. 조광제, 몸의 세계·세계의 몸, 이학사, 2004
6. K.C. Bloomer & C.W.Moore,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 이호진·김선수 역, 기문당, 1999
7. 박희령, 감각적 공간 체험에 따른 촉각적 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유비쿼터스 공간 디자인을 위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6호
8. 이선정, 현상학적 체험을 통한 건축의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제 15권 2호, 1995. 10
9. 곽문정,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을 통한 체험된 건축 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25권 1호, 2005. 10
10. 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인간의 '몸'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2호, 2004. 4
11. 홍유란, 현대공간디자인에서 빛의 지각방식과 공간경험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권 2호, 2007. 4
12. 안우진,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호
13. 김예진, 경험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5권 4호, 2006. 8
14. 박연정, 현대 미니멀 건축의 지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3
15. 조희철,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0
16. 김은이, 신체지각을 통한 공간디자인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론, 2005
17. 한국 현대 카톨릭 성당 실내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2004

<접수 : 2008. 2. 29>